

“자연 담은 휴식 공간에서 위로 전합니다”

2021 새로운 출발

〈4〉 김자이 작가

‘휴식’ 테마로 작품 활동...책·다큐 계획 관람객과 휴식방법 공유 ‘씨앗 키트’ 선물

지난 2018년, 주택을 개조해 문을 연 산수미술관을 찾았을 때 잔잔한 위로를 받았다. 어두운 공간엔 나지막한 새 소리가 들리고 사방 벽면으로는 푸른 숲의 영상이 펼쳐졌다. 수면양말을 제작하는 부드러운 실을 떠 천정에 나무 줄기처럼 매달아 놓은 구조물은 한없이 부드러웠고 전시장에 놓인 캠핑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으니 어느 순간 “내가 숲에 들어와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전시로 처음 만난 김자이(39) 작가는 ‘휴식’을 테마로 꾸준히 작업하고 있다. 그는 관람객들에게 ‘당신의 휴식 방법은 무엇인지’ 묻고 자신의 휴식 방법인 ‘식물키우기 씨앗 키트’를 제공하기도 한다. 코로나 19를 맞은 우리는 자연에 더 위로 받고 휴식을 갈망하고 있고, 그의 작업도 진화 중이다.



김자이 작가

지난해 광주시립미술관 국제 레지던시 입주자였던 김 작가는 결과 발표전을 갤러리가 아닌, 레지던시가 자리한 중외공원 낮은 동산에서 열었다. 지금까지 인공적인 휴식 공간을 만들어왔다면 ‘진짜’ 자연 속에서 휴식을 제안한 셈이다.

“레지던시를 하며 공원 산책을 많이 했죠. 화이트 큐브안에서의 인공적 휴식보다는 자연이 제일 좋다는 생각을 새삼 하면서 공원 동산에 휴식 공간을 마련해보자 싶었어요. 딱 혼자 들어가 쉴 수 있는, 나무로 만든 구조물을 설치하고 하늘과 숲을 볼 수 있는 틈을 만들었죠. 식물을 배치하고 휴식 방법을 기록하는 메모지도 준비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휴식에 익숙하지 못한 듯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예약을 받은 한 사람이 쉴 수 있는 시간은 45분. 편안한 의자에 누워 참여자들은 새소리를 들으며 자신만의 휴식을 만끽했다. ‘휴식’ 관련 리서치 등을 통해 나무나 숲 등 인공적인 사진이나 그림이 치유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그는 자주 머물렀던 지역의 푸른 공간을 찍은 사진을 선물로 전달하는 ‘씨앗키트’에



해동문화예술촌에서는 휴식을 테마로 작업하는 김자이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붙여 두었다. 프랑스 파리, 독일 뮌헨, 제주, 그리고 중외공원 사진이다.

조선대를 거쳐 영국 런던 킹스턴 대학에서 공부한 김 작가가 ‘휴식’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영국에서 논문을 쓰던 2012년 감상 선암으로 몸매 이상을 느끼면서부터다.

“제가 아침형 인간인데 당시 무기력증이 심하게 와서 이상하다 싶었죠. 영국 지도 교수님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너의 몸에 집중하고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권유하더군요. 쉬면서 무의식적으로 집에 있는 사물들을 다시 돌아보고, 또 제가 하는 말을 녹음해서 단어의 통계도 내보는 등 자연스레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 과거의 나를 찾는 시간들이 이어졌어요. 그러다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상황이 오면 안되겠다. 싶었고 쉽고 휴식에 대해 자연스레 생각하게 됐죠.”

우선 휴식과 관련한 리서치를 시작했다. 동적인 휴식(여행·뜨개질·요리), 정적인 휴식(명상)에 대해 알게 됐고 뜨개질을 하다 ‘작품’을 해보며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숲이나 나무 사진을 붙여 놓은 공간 등 인공적으로 자연을 접하는 것도 휴식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사람들에게

게 정적인 휴식을 제공하는 인위적인 숲을 작품으로 제공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게됐죠. 전시장에 식물을 배치한 건 항상 키우고 있었던 것이어서였구요. 뜨개질 작품은 자연스레 연결되었습니다.”

다채로운 색깔의 부드러운 녹색실을 떠 나무 줄기를 만들어 전시장에 매달았고, 사람들은 보드라운 촉감의 즐거움을 만지며 편안함을 느꼈다. 지난 2018년 독일 뮌헨 레지던시에서도 ‘휴식’ 작업을 선보이기도 했다.

“독일과 한국에서 전시를 하며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씨앗을 나눠 준 후 키운 식물 사진을 보내주시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잘 키운 사진만 보내는데 독일 사람들은 죽은 식물 사진도 보내시더라고요. 식물은 잘 키울 수도, 못 키울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이 자연스러운 거라고, 이런 게 삶이라는 코멘트와 함께요. 삶의 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김 작가는 처음으로 오월미술제에 참여해 의미있는 작업을 진행했고, 월산동 재개발 지역을 거점으로 진행된 ‘월산동 브루스’ 전에도 함께했다.

연말 연시에는 3곳의 전시장에서 조금씩 다른 ‘휴식’ 관련 작품을 선보였다. 19일 막을 내린 광주신세계갤러리의 ‘또 다른 광주’와 현재 이강하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불가능을 통해 약속된 가능성’ (2월 2일까지), 담양 해동문화예술촌에서 열리고 있는 ‘존재와 무 사이:코로나 시대의 인간-자연이 관계맺음’ (3월28일까지) 전이다.

김 작가는 ‘휴식’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가뉘어 작업과 다른 형태의 작업을 구상중이다. 올해는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작업들을 아카이빙하고, 관람객들에게서 받은 ‘휴식’ 관련 설문지를 통계화해 책으로 엮어볼 생각을 갖고 있다. 또 관람객들이 소개한 자신만의 휴식 방법을 커뮤니티를 만들어 함께 체험해 보고 이런 과정을 다큐로 촬영해 봐도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올해는 조선대 미술학과 박사 과정 논문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식물키우기 씨앗 키트

‘2021, 반갑소!’

21일~2월23일 광주신세계갤러리 황영성·이조흠 등 13명 작가 참여



김제민 작 '거기 누구 없소'



임현재 작 '소에게서 온 편지'

2021년 신축년(辛丑年)은 ‘하얀 소’의 해다. 근면과 성실함을 대변하는 소는 농경문화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어온 우리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온다.

해마다 새해전을 열어나 광주 신세계갤러리가 올해도 신년 축하의 의미를 담아 ‘신년기획전 2021, 반갑소!’ 전을 개최한다. 상서로운 흰 소의 기운을 담아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획이다.

21일부터 오는 3월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원로부터 신진까지 모두 13명의 작가가 참여, 소를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표현된 소들은 때로는 묵직하고 힘찬 모습으로, 때로는 가볍고 귀여운 모습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오랫동안 ‘소’와 ‘가축’을 주제로 작업해온 황영성 전 광주시립미술관장은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그리운 시간’을 선보이며 (사)한국서예협회이사장을 역임한 전명옥 작가는 새롭게 제작한 3m크기의 수묵화 ‘우보천리(牛補天理)’를 쇼윈도에 설치했다. 또 김지영 작가의 설치 작품 ‘꽃길만 걷소’는 송아지와 꽃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작품으로 관람객들이 자연스레 사진을 찍는 포토존 역할을 한다.

날개 달린 소를 그려온 김상연 작가는 나무와 철을 활용해 어딘가로 떠나는 소의 모습을 담은 설치 작품 ‘희망-길’을 선보이며 황중환 작가는 만화 캐릭터 느낌이 나는 ‘웃는 얼굴 소’로 관람객들을 만난다.

한국화가 임현재 작가의 ‘소에게서 온 편지’와 한지의 번짐 효과를 이용해 꽃과 소가 어우러진 모습을 은은하게 담아낸 정현성 작가의 ‘내 인생의 꽃밭’, 이조흠 작가의 작품도 눈길을 끈다.

이해리 작가의 ‘작은 소’는 2m 길이의 두루마리 형식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한 편의 이야기책을 감상하는 느낌이 들며 풀과 나무 등 자연을 소재로 작업해온 김제민 작가의 ‘Grass-소’와 ‘거기 누구 없소’는 따뜻한 감성을 전한다.

그밖에 즐겨 그리는 어린 소녀의 이미지와 소를 결합한 성혜림 작가를 비롯해 윤남용·김해성 작가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23일 시사회 광주독립영화관 국내영화계 작품도

독립영화 ‘바다로 간 아이들’...주인공은 광주 어린이들

광주 지역 어린이들이 주인공으로 참여한 독립영화가 만들어져 눈길을 끈다.

독립영화 ‘바다로 간 아이들’ (사진) 시사회가 오는 23일 오후 3시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열린다.

이번 영화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과 초록우산이 후원하고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전문 단체인 문화공동체 아우름이 주관·운영하고 있는 사회공헌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기아챌린지 어린이 뮤지컬’ 팀의 교육프로그램 일환으로 제작됐다.

지난 2016년 창단한 ‘기아챌린지 어린이 뮤지컬’ 팀은 광주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어린이들 중 춤, 노래, 연기 등 예술재능이 뛰어난 어린이들을 매년 모집해 창작뮤지컬을 선보여오고 있다.

영화 제작은 필름에이지(대표 윤수안)가 맡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 시대 아이들이 맞

닥트린 현실과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들을 시나리오로 제작했고, 10월부터 3개월 동안 촬영했다. 초등학교 5학년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24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영화는 25분 분량으로 완성됐다. 영화에 출연하는 어린이들의 예술적 에너지를 표출할 수 있는 뮤직비디오 형식의 댄스를 영화에 가미한 것이 특징이다.

작품은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은체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은체와 친구들의 좌충우돌 방랑기를 그린다. 은체는 코로나19로 손님이 끊긴 식당을 운영하는 엄마의 잔소리를 피해 친구들과 무작정 바다로 떠난다. 하지만 바다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은 집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는다.

영화는 시사회 이후 극장 배급을 통해 전국의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며, 국내 영화제에도 출품된다. 시사회는 영화 관계자들만 초대해 진행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